

캐나다 물리치료의 발전사

서울대학교병원 물리치료실
이 완 희

The Modern Development of Physiotherapy in Canada

Wan-hee Lee, R.P.T.

Dept. of Physical Therap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차 례

- I. 서 론
- II. 본 론
 - 1. CPA 설립
 - 2. 1,2차 세계 대전 중의 캐나다 물리치료
 - 3. 발전기의 CPA
 - 4. 성장기의 CPA
 - 5. 팀으로서의 공헌
- III. 결 론
- 참고문헌

총면적 1000만 km²(남한의 101배), 인구 2700만 명을 지닌 캐나다 물리치료의 발전사를 되돌아 보며 물리치료가 국내 도입된 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를 설정,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단, 이 논문이 1983년까지의 CPA (Canadian Physiotherapy Association) 발전사이므로 그 이후의 발전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회있을 때 논의하기로 하겠다.

II. 본 론

I.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 의학계의 발전과 더불어 21세기 물리치료의 학문적 정립과 치료술의 개발 등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전국민적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물리치료가 발전되어야 했음을 이상적인 기대로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가 1950년 6.25를 기해 많은 부상자가 생기므로 이에 대한 물리치료가 절실히 요구되어 그 이후의 근대적 물리치료의 가교(架橋) 역할을 해 왔듯이 캐나다 물리치료의 발전과 성장도 세계대전을 전후해 이루어졌음은 조금은 불행한 일이었다 할 수 있겠다.

1. CPA 설립

캐나다 물리치료의 발전은 두 개의 세계 대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14년 이전의 캐나다에는 극소수의 물리치료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들은 masseurs 또는 masseuses라고도 하였고 대부분이 Montreal과 Toronto에 거주하였고 영국과 유럽, 미국 등에서 교육 받은 사람들이었다.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캐나다로 되돌아 오기 시작하자 보다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915년 체육교육학교의 감독관인 Miss Cartwright가 이 학교와 결합으로 McGill 대학에 1년의 물리치료 과정을 설치하였다. 1916년 Miss Cart-

wright는 전쟁 전에는 독일의 Heidelberg에서 massage 과정을 이수하였고, 미국의 Philadelphia Orthopedic Institute에서 2년 과정 교육을 마친 Mrs. Graham(당시에는 Enid Finlay라 불리었다.)과 함께 합류하였다. 그러나 부상당한 사람이 늘어나자 보다 더 많은 물리치료사가 요구되었다.

1917년 육군군사위원회(Military Affairs Commission)는 육군정형외과학교(Military School of Orthopedic Surgery)와 결합으로 서로 다른 4개의 관점에서 지도 할 수 있고 하나의 과정이 6개월인 4개의 코스를 개설하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수동적 치료법(전기치료 포함)을 배워 masseur나 masseuses로서 활동하였고, 근력 평가와 운동치료를 배워 근기능 지도자로서 활동하였으며 기능적 활동을 위한 작업치료법을 배웠다. 반면에 보다 상위의 지휘관들은 거의 퇴원에 가까운 환자들을 위해 체육학교에서 운동 치료법을 배웠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Ontario의 Whitby에서 시작했으나 곧 Toronto의 Hart House로 옮겨져서 1919년까지 계속되었다. Mrs. Graham은 masseuse분과의 감독관으로 임명되었다. 250명의 남녀 모두가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캐나다 전지역의 육군 병원에 임명되었다.

1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재향군인들에 대한 보살핌이 점차 감소하게 되자 보다 정확하게 표준화된 교육과 실습이 캐나다에 필요하게 되었다. 상당한 고려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열정, 그리고 Mrs. Graham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이미 주정부 승인을 신청한 Montreal 물리치료사와 국가적인 협회를 형성하기 위해 Toronto의 물리치료사들이 결합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전쟁기간 중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은 완전한 추가교육과 특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회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마침내 1920년 3월 자치령 설립 조항에 따라 Canadian Association of Masseuses and Remedial Gymnasts란 이름으로 캐나다 협회가 설립되었고 1935년 협회의 명칭이 지금의 Canadian Physiotherapy Association으로 바뀌었다.

2. 1, 2차 세계 대전 중의 협회 및 활동

1) 1차 대전

1920년에 캐나다의 병원에서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요구되었지만 이들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거나 다른 직종을 선택하는 이들이 나타났고 영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물리치료사의 캐나다 이민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충분한 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1929년 Mrs. Graham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비교적 대학의 교육시설과 인접된 병원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Toronto 대학에 특별 공개강좌로서 2년의 Diploma 과정이 개설되었다. 협회의 회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6개월의 Internship이 더 필요했다.

처음 2년간 이 대학의 교육과정은 영국 런던의 성토마스 병원에서 교육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Miss Lilian Pollard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녀의 지도로 그 당시 영국의 제도에 기본을 둔 교과과정이 작성되었다. Miss Pollard는 이 시기의 끝 무렵에 성 토마스 병원으로 되돌아 갔지만 Canada에 교육적인 어려움이 돌발하자 1943년 다시 캐나다로 되돌아와서 1950년에 은퇴할 때까지 Toronto 대학의 교육을 성장 발달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1920년과 1930년대의 캐나다 서부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1954년 CPA의 지부가 몇몇 면허 있는 물리치료사들에 의해 Vancouver에서 시작되었다. 더욱이 Vancouver에서 보다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필요하게 되자 영국에서 물리의학(Physical Medicine)을 전공한 Dr. George Greaves에 의해 Vancouver General Hospital에 1년의 물리치료 과정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병원에 기본을 둔 교육과정은 해부학이나 생리학, 기타 의학과 연관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의학시설이 전혀 없었다. 이는 영국의 British Columbia 대학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의학부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은 그 성격면에서 보다 기술적이었고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은 CPA의 요구에 부합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Toronto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들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자 1932년 교육이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Vancouver에서 병원의료 서비스의 활동적인 한 분야로서 물리치료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한 Dr. Greaves는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항상 환자들을 위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길 좋아했고 전문가적인 윤리 의식을 가졌다.

캐나다 서부(특히 Winnipeg)에서 물리치료사들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의사나 다른 의료진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은 사람이 Mrs. Helen Ross였다. 1949년 CPA는 그녀의 전문성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여 협회의 명예회원으로 임명하였다.

Mrs. Ross는 1차 세계대전 전에 Boston에서 기본과정을 공부했다. Mrs. Ross는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에 물리치료과의 발전을 위해 Toronto로 되돌아 갔다. 1922년 Ross는 어린이 병원에 물리치료과를 설치하기 위해 Winnipeg으로 가서 그녀가 은퇴한 1944년까지 22년 동안 오로지 몇몇 전문 물리치료사들만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일했다. 이 시기에 Winnipeg에는 전문 물리치료사들이 상당수 부족했다. 그러나 그녀의 명성은 의료계에 넓게 퍼졌다. 예를 들면 해부학과와 의과대학의 회장인 Dr. I. MacLaren Thompson은 그의 학생들에게 소아마비 환자들에 대한 정상, 비정상적 근기능과 근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운동형태의 변화 등을 가르칠 목적으로 상당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Mrs. Ross를 찾아와 강의를 부탁하였다. Dr. Thompson은 Ross의 근기능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의 학생들에 대한 열정적인 강의에 깊은 감동을 받아 의학부 자문위원회에 그녀의 공헌에 대해 정식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2차 대전

2차 대전 중에 캐나다에는 오로지 1개의 물

리치료 교육과정이 있었고, 한 해에 졸업하는 물리치료사의 수가 매우 적었다(1938년에는 12명만이 졸업) 따라서 포괄적인 환자치료를 위해 1차 대전 때보다도 더 많은 물리치료가 요구되었다. Mrs. Graham이 다시 일어섰다. 육군군사 위원회가 육군에서의 물리치료사들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Mrs. Graham은 남편의 도움으로 CMA(Canadian Medical Association, 캐나다 의학협회)의 협회장으로 선출되고, 영향력 있는 의료계의 임원들과 전문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CPA에 등록된 전문 물리치료사들을 의협 내에서 위임받은 임원으로 인정하고 보증해 줄 것을 교섭하여 동의를 얻었다. 또한 같은 위임받은 계층의 사람들과 보수와 특권도 동등하게 유지될 것에도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물리치료사들에게 직면한 일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500병실의 병원에 물리치료사가 단 2명이 배치되었고 1,000병실의 병원에는 3명의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었다. 물리치료실은 최소한의 공간만이 제공되었고 장비 역시 매우 부족하였다. 새로운 병원에 배치가 되면 의사와 간호사들은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인내와 실제 환자치료 등을 보여 주고 토의과정을 거치는 동안 "team effort"(팀구성원으로서 역할)로서 인정 받기 시작하였다. 간호사들은 환자들 병실에서 시간마다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물리치료사들은 1주일에 60시간 이상을 일해야 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과학적인 연구를 하거나 기록, 출판할 수 있는 환경적 도움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 전문가들은 비판적 비교 능력을 배양했고 새로운 치료 방법론의 개발에 정열을 쏟았음은 지금의 우리 한국 물리치료에도 크게 자극될적이다.

반면에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영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해서 환자를 치료한 예도 있었다. 삼각건 붕대를 사용하거나 스포링을 이용한 치료법이 Mrs. Olive Guthrie Smith 의해서 시행

되었다. 처음에 이러한 치료법이 캐나다 물리치료사들에게는 무척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현대 호흡치료의 기초가 되는 치료술을 영국의 Brompton Chest Hospital에서 Miss Linton에게서 배웠다. 얼마 후에 캐나다 물리치료사들은 Sicily에서 영국 흉부외과 팀과 함께 몇 주를 보낼 수 있었고 Miss Linton의 훌륭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거기에서 흉부외과 팀으로부터 함께 팀을 구성하자는 제의를 받기도 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보다 많은 부상자들이 캐나다로 되돌아와서 Veterans' Affairs(DVA) Hospitals로 이송되었다. 350명의 CPA 회원 중 거의 1/3 이상이 군에 징병되었고 또 하나의 공인된 물리치료학교가 1943년 Miss Margaret Finley(후에 Mrs. Margaret Vatcher라고 불림)에 의해서 McGill 대학에 설치되었지만 졸업한 물리치료사의 수가 일반인과 Veterans' Hospital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충족할 수가 없었다. 특히 소아마비 전염병의 발생으로 문제는 더 하였다. 예를 들면 1945년 9월 전지역에 걸쳐 20여명의 물리치료사들이 DVA 병원에 고용되었고 그들의 1/3 이상이 Toronto의 Christie Street Hospital에서 일하였다. 일부분 인력의 부족함이 육군으로부터 DVA 병원에 임명되었던 물리치료사들에 의해 충당되기도 하였고 영국에서 온 물리치료사들에 의해 보충되기도 하였다.

3. 발전기의 CPA

1940년 말에 2개의 물리치료학교가 캐나다 전 지역에 걸쳐 물리치료사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인식이 대두 되었다.

첫번째 문제는 이미 설치된 학교에 자격이 있고 경험이 많은 교수진의 확보에 있었다. 영국에서 실시한 것과 비슷한 2년간의 교수 교육 과정이 전쟁이 끝난 직후에 Miss Pollard에 의해 Toronto 대학에서 시작되었고 곧이어 McGill 대학에서도 비슷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위해 준비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다른 대학에

서도 이러한 물리치료 교육과정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되었다.

1954년, 드디어 2개의 새로운 교육과정이 설치되었다. Alberta 대학(Edmonton)의 물리치료교육이 그 중 하나이고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결합된 교육이 Université de Montréal (Montreal)에 설치 되었다. Alberta 대학에서의 물리치료교육은 당시 Toronto 대학의 교수 교육과정을 막 졸업한 Miss Nancy Rendall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3년 과정의 Université de Montréal 교육과정은 1950년 Toronto의 교육과정과 유사했는데, 이는 의학부의 후원 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Université de Montréal의 교육과정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처음 2년 동안 자격있는 전문 작업치료 교수들은 있었으나 물리치료 교수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Toronto 대학과의 교환교수제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충분한 교수 요원의 확보때까지 계속되었다. 점차 영국에서 교육받은 교수들이 캐나다로 되돌아 오고 자체 교수요원의 확충으로 보다 많은 물리치료 학교들이 개설되어 지금은 Halifax에서 Vancouver까지 캐나다 전 지역에 12개의 공인된 캐나다 물리치료 학교가 있다.

1951년 WCPT 총회의 개최식이 11개국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덴마크의 수도 Copenhagen에서 개최되었다. 현재는 WCPT에 44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집행위원회에 속해 있었고 캐나다 대표들은 Miss Gwen Gower-Rees와 Mr. A. J. Ferando가 부의장으로 Miss Doreen Moore가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4. 성장기의 CPA

캐나다의 여러 물리치료학교들이 그들의 위상을 증진시키고 전문성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노력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다.

1950년 이후로 McGill 대학이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결합된 형태로 학사학위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전에 수료과정을 거

친 사람들은 학사과정의 교육을 좀더 필요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좀더 개발 성장하려는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한이 많았다.

최소한 2년간의 임상 경험이 있는 물리치료사들을 위해 1년간의 완전한 학위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Manitoba 대학에 의해 제공되었다. 1967년 최초의 학생들이 졸업했다. 캐나다와 전세계의 물리치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다. 10년이 흐른 1976년 처음으로 Manitoba 대학이 기본 학위과정을 개설했다. 이로 인해 다른 많은 대학들도 학위과정을 개설했고, 1982년 이후로 CPA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사람은 학사학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학사교육 과정이 설립된 이후로 많은 졸업생들이 석사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원이나 연구과정에 입학하였다. 처음에는 이러한 대학원 교육이 비록 물리치료학과 연관이 있기는 하나 다른 분야에서만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대학에서 진정한 전문 물리치료의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고 있어 명실공히 전문 물리치료사들이 양성되고 있음을 볼 때 비록 국적이 다른 한국 물리치료사이긴 하지만 실로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CPA는 새로운 정보나 치료기술 등의 도입으로 전 회원들의 전문성을 유지, 개발 시켜주고 평생 교육에의 길을 넓게 제시해 주고 있다.

5. 팀으로서의 공헌

여러 가지의 장애, 질병, 손상과 깊은 관계가 있는 재활이라는 것은 많은 학문 분야에 관계가 있는 팀의 공헌을 필요로 했다. McKenzie MW는 “전체적인 환자들의 건강증진과 치료를 위해서는 세분하게 전문화된 팀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필요할 때마다 이러한 팀은 자유롭게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적으로, 캐나다에도 팀의 리더는 의사들이 해왔다. 그러나 점차 의사들도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다른 전문의료인(물리치료사, 간호

사, 작업치료사, 심리치료사 등등)의 도움과 이들의 협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65년 Manitoba 대학의 물리치료 감독관인 Dr. Leslie Truelove는 “전문가의 의식”이라는 논평에서 “물리치료사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책임감을 느껴왔고 그들의 전문적 지식에 바탕을 두고 결정을 한다”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리고 팀의 리더로서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팀과 관련된 구성원으로서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환자에 대한 진단이나, 검사 결과, X-선 그리고 다른 치료법이나 약의 사용 등에 대한 협조를 얻는데만 필요하다고 하였다.

작업치료사 역시 캐나다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 직종이었으나 당시에 캐나다에는 Toronto 대학에 특별 공개 강좌로서 개설되어 물리치료나 다른 의료진과의 접촉은 별로 없었다. 후에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결합된 교육이 개설되어 팀으로서 많은 공헌을 하였다.

Ⅲ. 결 론

미국의 물리치료 역사에는 Mary McMillan 여사가 기억되고 있고 캐나다 물리치료 역사에는 Mrs Enid Graham이 기억되어 해마다 이들에 대한 기념식과 기념 강연이 열리고 있다.

우리 한국 물리치료는 지금 험난한 산맥을 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어왔지만 앞으로의 미래에는 무한한 도전과 발전이 보장되어 있다고 본다. 보다 과학적인 지식과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로 다른 의료진의 존경을 받아야 하고 세계 물리치료의 올림픽인 WCPT 총회도 한국에서 개최해야 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도 또한 지고 있다. 현재 CPA의 협회장인 Nancy McKay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미래의 수평선은 넓기만 하다!

참 고 문 헌

1. 이강필 : 한국물리요법의 발전사. 우석의대 잡지, 제 1 권 1 호, 1970.

2. Graham E : Canadian Physiotherapy Association : An historical sketch. J Can Physio Assoc 1 : 9~13 & 29, 1939.
3. Graham E : Canadian Physiotherapy Association : 1939~1949. J Can Physio Assoc 8 : 15~22, 36~39, 1956.
4. Graham E : Editorial, J Can Physio Assoc 1 : 4, 1939.
5. Hislop H : The not-so-impossible dream. Phys Ther 55 : 1069~1080, 1975.
6. Marjorie Spence : Enid Graham Memorial Lecture. J Can Physio Asso : Vol 35, 241~246, No. 5, 1983.
7. McKenzie MW : Occupational therapy. Chap 7 IN Orthop Rehabil, Nickel VL(Ed). New York, Churchill Livingstone Inc, 1982.
8. Peat M : Physiotherapy ; art or science. Physiother Can 33 : 170~176, 1981.
9. Rendall N : Home care. Physiother Can 7 : 311~314, 1955.
10. Singleton Mc : Do we dare remember. Phys Ther 57 : 1264~1270, 1977.
11. Truelove LH : Professionalism. J Can Physio Assoc 17 : 87~89, 1965.
12. The begining of Association. AJPT 56 : 1, p. 56, Jan 1976.